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10월 호)



CST 2025년도 가을학기 임원단 소개



〈사진: 박성진 전도사, 23년도 가을학기 M.Div. 입학〉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인 학생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목회학 석사과정 중에 있는 박성진(Kai)이라고 합니다. 저는 Community Life에서 일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현장 대면 이벤트, CST 월간 영문 신문 작성,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NSO: New Student Orientation)을 담당하는 조교입니다.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저와 소통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졸업을 하고 싶었지만, 한인 학생회 회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인 학생회를 1년 동안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인 학생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 학생들과 한인 학생회가 연대함으로써 한인 학생회 구성원의 범위를 넓히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이혜인 전도사, 24년도 가을학기 M.Div. 입학〉

안녕하세요. 2025년 가을 학기부터 한인 학생회 부회장으로 섬기는 이혜인입니다. 저는 2024년 가을 학기에 CST에 입학하여 M.Div 과정을 밟고 있으며, 학업과 더불어 국제 협력처에서 이경식 부총장님과 김남중 교수님을 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Tujunga UMC와 Crescenta Valley UMC 두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ST에서의 여정은 제 가치관과 시야를 크게 넓혀 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캠퍼스 이전 이후 새로운 학업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도시인 LA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접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유학 과정 중 CST의 장학금과 여러 후원자분의 도움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귀한 나눔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저 또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더 많은 분이 용기를 내어 CST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ST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한인 학생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가을 학기부터 함께 한인 학생회를 섬기게 된 박성진 전도사님과 협력하여 앞으로의 한인 학생회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문과 공동체의 만남: CST 2025 가을 인텐시브 워크



〈사진: 학생들이 가을 인텐시브 워크에 참여하여 대면으로 함께 수업하는 모습〉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2025년 가을학기 인텐시브 워크가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인텐시브 워크는 Westwood Campus에서 대면으로 열렸으며, 미국 전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인텐시브 워크 동안 Westwood UMC를 비롯한 총 5개 교회가 점심 식사를 후원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매일 풍성한 식탁을 나눌 수 있었다. 점심 교제 시간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교수와 학생들이 신학과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깊이 쌓는 교제의 장을 함께 마련하였다.

CST는 2024년 초 Westwood로 이전한 이후 온라인 강의, 실시간 줌 강의, 그리고 인텐시브 강의를 병행하며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통학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을 주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인텐시브 워크는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해 학생들이 교수와 동료들과 대면으로 만나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이번 인텐시브 워크를 통해 동료 학생들과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로의 배경과 사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학문적 자극뿐 아니라 영적 도전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한 주 동안 과제와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학기 전반의 작업량을 조절하고, 이후 학기 일정을 더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인텐시브 워크는 학생들이 학문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인텐시브 워크가 학생들의 학문의 여정과 사역의 소명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함께 식사하는 시간〉



〈사진: 수업현장〉

함께하는 배움의 여정: DPC, LA로 떠나는 수학여행



〈사진: 2024년 수업 중 신영각 목사가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다〉

CST의 전문상담 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이하 DPC) 과정 학생들이 내년 2월 특별한 수학여행에 나선다. 이번 수학여행은 2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미국 LA 롱비치 항구에서 출발해 로얄캐리비언 크루즈사의 네비게이터 호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한다. 여행 중에는 카탈리나섬(Catalina Island)과 멕시코 엔세나다(Ensenada)를 방문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탑승하게 될 네비게이터 호는 중대형 보이저급 선박으로, 1,50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대형 크루즈다. 여행 비용은 1인당 \$545.03으로, 4박 5일 숙박과 다양한 뷔페 식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관광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상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공동체적인 경험을 쌓게 된다.

이런 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새로운 방식의 배움을 경험한다. 영성 세미나를 포함하여, 바다 위에서의 생활, 낯선 도시와 문화 속에서의 체험은 개인적·전문적 성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DPC 과정은 학문적 탐구와 실제적 경험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번 LA 수학여행은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들은 여행을 통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동료들과 교제하며 새로운 통찰을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넓히게 된다. 타문화와의 만남, 바다 위에서의 묵상,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들이 학위 과정 속에서 배우는 이론과 맞닿아, 학생 각자의 배움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다. 이번 수학여행 기간 김지훈 교수와 이경식 수석 부총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담사들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 지역 사회,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한다.

수업은 대면·온라인·하이브리드 방식을 절충하여 진행되며, 이번과 같은 특별한 현장 경험 역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DPC 과정은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전문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풍성히 키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LA 수학여행은 그 중 하나의 사례로, 학생들에게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사진: CST 후디를 입고, 2024년 수업 중에...〉



〈사진: 2024년 수업 중〉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프로그램 소개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써 교회, 지역 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변화와 치유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학위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목회상담과 영성통합심리치료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CST는 많은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그중에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로서 종사하는 동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CST는 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ST의 목회 상담 분야는 목회상담에서 영성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목회 또는 기독교적 상담만이 아닌 초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영성통합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CST의 Ph.D. 프로그램은 CST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학위입니다. 더 나아가 CST는 15년 이상 한인 목회자를 위한 한국어 박사 학위(D.Min.)를 제공해 왔으며, CST의 학위 과정은 충실한 내용,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 학위 과정은 여러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CST의 전문 상담 박사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학설명회 장소와 일정

중 입학설명회 일정(한국 시간 기준)

학제에 관하여

중 계정

입학설명회

장소: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날짜: 9월 27일
시간: 오후 12시 30분
(점심 제공)

9월 20일 (토) 오전 11시
10월 11일 (토) 오전 11시
10월 25일 (토) 오전 11시
11월 8일 (토) 오전 11시
11월 22일 (토) 오전 11시

DPC 과정은 총 36학점 과정이며
(한 과목당 4학점) 2년 동안 5세션이 진행됩니다.
큰 비용을 들여 미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수업은 대면, 온라인, 하이브리드 포맷을 절충하여 섞어 진행합니다.
학위 과정 중 선택적으로 단체 미국 수학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CST의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설명회 참석 중 링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자.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 등록금 장학금 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4기생은 11월 말, 5기생은 26년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 원서 작성 문서를 [여기에서](#) 다운 받으세요.)
2. 등록금과 장학금: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은 한글로 쓰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김지훈

문의: 김민정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DPC 강의 소개 - 김용환 교수



〈사진: 김용환 교수, CST 동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CST 겸임교수〉

수업 정보(10월 13-17일)

TPC 4002: Adult Development & Counseling with the Elderly

이 강의는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노화의 본질과 노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최적의 기독교 상담을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적, 영적 이론이 노인 상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또한 노인과 함께 일하는 데 유용한 심리 평가, 인터뷰 기술 및 그룹 상담 접근 방식에 대해 배웁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와 노화에 따른 정신 건강 및 웰빙의 다양한 모델이 다루어집니다. 이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노화 모델을 소개하고 노인 상담의 독특한 특징을 탐구합니다.

DPC 강의 소개 - 유상희 교수



〈사진: 유상희 교수, CST 동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수업 정보(10월 13-17일)

TPC4000: Law and Ethics in Counseling

이 과정은 상담 윤리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실천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목회적 돌봄 및 상담과 전문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주제들을 윤리적 결정 모델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논의하며, 이를 통해 개인 정체성과 전문가 정체성을 재고찰하고 상담 윤리 민감성과 상담역량을 증진한다.

CST에서의 한 학기, 의미 있는 만남과 성취



〈사진: 왼쪽 Sheryl A. Kujawa-Holbrook 교수,
오른쪽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CST Visiting Scholar〉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CST에서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로 한 학기를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던 모교에 돌아오니 초심이 생각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 동문들과 후원자분들, 그리고 CST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CST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 중 하나는, 그간 한국에서 연구해 온 한국인의 중층신앙과 혼종성을 바탕으로 「Korean Christianities and Spiritualities」(한국 기독교와 영성) 강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저에게는 연구 성과를 미국의 학생들과 나누고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학생들에게는 Asian-American 관점을 넘어 아시아적 맥락에서 기독교와 영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박사과정 학생은 “한국에서 입양되어 자란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영성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전해주며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지난 해 한국종교사회학회에서 발표했던 「탈교회 신자(가나안 성도)와 중층신앙: 탈종교 시대 한국 개신교의 현상과 미래」라는 논문을 마무리하여 <종교와 사회> 13권 1호에 게재하였고, 최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종교문해력에 관한 논문을 두 편 더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어도 시차 문제로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학술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특히 미국종교학회(AAR)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종교교육학회(REA)에 이사로서 온전히 학회에 참여한 것은 오랜 동료들과 다시 연결되고 다시금 새로운 학문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4월 5~6일에 있었던 강남순 교수님(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의 CST 공개강연, 5월 19일 한인학생회 학기말 예배, 5월 20일 졸업식 등에 참여하며 CST 교내외 구성원들과 교류한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은사님들을 만나 그간의 삶을 나누고,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현재의 관심사와 여정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감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저는 이번 방문학자 경험은 단순히 일상을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형성하는 깊은 연결을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초대합니다!



〈사진: 계산중앙교회 최신성 담임목사, 회장〉

어느덧 2025년도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CST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고 계신 동문을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인천에 위치한 계산중앙교회에서 가을 동문의 날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바쁘시지만 꼭 참석해 주셔서 오랜만에 친구 그리고 선후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온 동문들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동문회를 섬기는 임원진 소개



〈사진: 왼쪽부터 이상수 서기, 박동식 총무, 전성국 회계, 최신성 회장〉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회입니다. 현재 한국동문회는 계산중앙교회 담임 최신성 박사를 회장으로 모시고, 2025년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총무로는 서초중앙교회 담임 박동식 박사, 회계로는 호산나교회 담임 전성국 박사, 서기로는 동해교회 담임 이상수 박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동문회는 최신성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동문들을 섬기고 소식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분의 동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에서 함께 소식을 나누고 있으며, 200여 동문의 주소를 파악하여 동문 애경사 및 한국동문회 소식을 문자와 서신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사로는 2025년 한국동문회 신년하례회로 지난 1월 꽃재교회(동문 김성복 감독 시무)에서 모였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전을 방문하여 식사와 선물로 격려하였습니다. 한국동문회 어르신 식사 대접과 동문 야유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4일 계산중앙교회(회장 최신성 목사 시무)에서 오전 11시 한국동문회 정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문들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기독교 영성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리교회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을 비롯해 권오서, 권영화, 김성복, 남문희, 박장규, 우광성, 채성기, 최현규 감독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정태기,王大일, 여성훈, 유태엽, 권진숙, 소기천, 양성진, 오현선, 정푸름 등 감리교와 장로교 등 각 교단의 명문신학교에서 수십 명의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다니교회(곽주환 목사), 은평감리교회(김동현 목사), 목양교회(김완중 목사), 천성교회(한동수 목사), 한사랑교회(황성수 목사), 임마누엘교회(김정국 목사), 용두동교회(박상원 목사), 인천중앙교회(강호근 목사)등에서 동문 목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동문들과 한국동문회를 통해 더 따뜻한 소식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몬트

2025 한국동문회



202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회 정기 모임에
동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5.10.24(Fri) 11:00 am

계산중앙교회 (회장 최신성 목사 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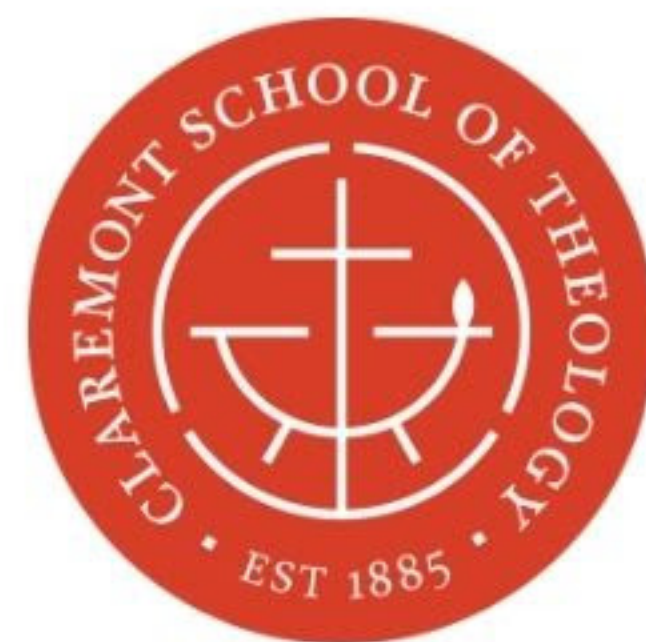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82

문의 | 서기 이상수 010-6773-1203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 목회학 석사(M.Div.) 입학 안내

공화, 정의, 소속감을 추구하는 신학교육 -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위한 여정,
CST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세요.



장학금 지원

- 합격 시 장학금 보장
-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목회 사역지 지원

- 목회 사역지와 연결시켜 줌
- UMC(미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 과정 지원 및 상담



유학 생활 정보 제공



지원 마감일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봄학기 우선 마감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봄학기 최종 마감
- 2026년 6월 1일 - 2026년 가을학기 최종 마감

지원 요건

항목	내용
지원서, 이력서/CV	온라인 작성
자기소개서	약 1,000단어
영문 성적표	학부 및 대학원 (해당 시)
영문 추천서	학문/전문 2부, 목회/일반 1부
입학지원비	\$50
영어 능력	TOEFL/ IELTS/ Duolingo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공화(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CST는 성서 해석과 예술적 창조, 자기 성찰과 치유, 해방적 실천과 전통의 통합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 생태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실천합니다. CST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다양성과 겸손을 품고 전 세계 기관들과 연대하여 생명과 정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 admission@cst.edu
✉ 한국어 문의: kcf@cst.edu

🌐 www.cst.edu

🌐 입학 지원 마감일 안내:
<https://cst.edu/admissions/deadlines-requirements/>

2025-2026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한국어)

WASC & ATS 승인: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100% 원격 수업 인증으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1월 겨울학기: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 진행
- 7월 여름학기: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 진행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신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특징:

- 현장 중심 학습과 원격 학습의 통합
- 유연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 뛰어난 교수진과의 실시간 상호작용



**CST에 입학하여 새로운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CLICK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CST 한인뉴스레터
소식을 받아보세요!